

불교가 힌두교의 종파라니...

‘힌두교 신자가 불교로 개종해도 힌두교 신자다?’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한 2003년 종교자유법을 최근 뜯어고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 정부. 하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종파로 집어넣은 법개정을 하자, 인도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NDTV는 인터넷 기행 기사에서 ‘구자라트 주 정부에 의해 9월 19일 통과된 종교개정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힌

해 수정법안을 만든 것이고 특정 종교의 종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불교계와 구자라트 주 기독교도와 무슬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구자라트 주를 종교적 차이에 따라 분열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인도 헌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독립된 종교로 규정돼있다.
 법조인이자 인권운동가인 그리쉬 파텔



▲사진은 2001년 인도 뉴델리 암베드카르 회관에서 열린 ‘힌두교도 1만여 명 불자 개종식’.

▶ 당시 불자들은 수계법회와 개종식을 끝낸 뒤 정부의 집회불허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등 힌두 원리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당시 불자들은 수계법회와 개종식을 끝낸 뒤 정부의 집회불허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등 힌두 원리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 법개정을 했다”는 해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다. 구자라트 주 야당들도 주 정부가 종교를 투표용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달리트(Dalits), 즉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해 ‘힌두내셔널리즘’을 표방한 인도인민당(BJP)과 힌두민족자결단(RSS)의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구자라트 주 인구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 0.5%, 힌두교 85%, 이슬람교 14%. 최근 들어 달리트의 ‘탈힌두교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서울대 윤원철 종교학과 교수는 “불교는 힌두교와 교리적·신앙적 차원과 상관 없이 독립적인 역사종교로 그간 2500년 넘게 전세계인들에게 인식돼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불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우겨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정부 종교법 개정 논란 “개종해도 힌두신자”...헌법엔 ‘독립종교’ 명시 현지 언론 “불가촉천민 표 묶어두려는 속셈”

두교의 한 종파로 분류된다”며 “불교도와 자이나교도도 개종하기 위해 법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힌두교 종파 간 개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동일종교내 종파 간 이동에는 개종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게 한’ 법개정으로, ‘개종’의 의미를 주 정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구자라트 정부는 뿐만 아니라 수정된 법 조문에 타종교도 임의로 ‘짜짓기 분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종파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기독교의 종파임을 분명히 했다.
 구자라트의 아쇼카 바트(Ashok Bhatt) 법무장관은 “‘개종’의 정의가 너무 모호

(Girish Patel)씨는 “역사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의 초기형태인 베다교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만약 불교가 힌두교 종파로 규정된다면,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힌두교 국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주 정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개정법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등 지속적인 개종의 압박에서 달리트는 상황에서 하층 카스트에 속하는 힌두교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대해 ‘구자라트 주 정부가 투표를 의식해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미국불교 급성장엔 이유가 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 9월 14일자에 제인 램프만(Jane Lampman)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불교’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 따르면, 불교는 기독교·유대교와 이슬람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종교이며 다른 종교의 쇠퇴와 달리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미국 내 불교도 숫자가 170% 증가하였다. 위 ‘조사’에서는 2004년 미국 내 불교도가 15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일부에서는 300만 명에 가깝다고 추산한다. <미국 불교(Buddhism in America)>의 저자인 리처드 시거(Richard Seager) 교수는 “150만 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한다.

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듯 보이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많은 우리 스님들이 교포를 대상으로 한 절을 세워 활동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혀야 할 시점이다.
 우리 스님들 중에는 달라이 라마가 움직이는 곳은 세계 어디에서든 열광적 환영을 받고 불교 붐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이는 세상 흐름을 모르는 어리석은 진단, 자기기만(欺瞞)에 불과하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비불교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탁남한 스님의 경

최근 10년새 불교도 숫자 170% 증가

맑은 수행자 상 보여준 달라이 라마 영향 커

시거 교수는 미국 불교 신자의 3분의 2 정도는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새롭게 불교로 개종한 현지인이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매력은 무엇일까?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선(禪) 불교’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불교의 급상승을 가능케 한 것은 달라이 라마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전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광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방식’이 미국인들의 합리적 성격에 부합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출신의 티베트 라마승인 수리야 다스(Surya Das)는 “미국인들은 달라이 라마와 탁남한 스님과 같은 불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사원을 짓지 않고, 오늘날 꼭 필요한 화합과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을 찾고 지혜를 전해줍니다. 서양 종교에서 강조한 적이 없었던 영적(靈的)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해외 포교는 대규모 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국을 떠나 정치적 망명길에 나서야 했던 두 스님에게서 ‘중요·복수’ 등의 어두운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용서·평화·화합’과 같은 맑고 향기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교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사지(Assaji) 비구의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저 분의 스승이라면 생사의 번뇌를 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며 결국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던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출가 인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해외 포교를 실천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단이 나서서 ‘국제 포교’를 강조하고 해외 사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불교의 급상승 배경을 잘 살펴본다면, 맑은 수행자 상(象)을 세우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 자유기고가

러 투바공화국에 세계 최대 만트라 총 길이 120m 길이... 달라이 라마 방문 기원

세계에서 가장 큰 만트라(진언)가 러시아의 불교국가 투바에서 조성됐다.
 러시아 언론 카스노야르스키 뉴스는 “최근 투바를 방문한 구드메드 탄트릭(Gyudmed Tantric) 티베트 사원의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의 투바공화국 공식 방문을 재촉하기 위해 만트라를 새겼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진언은 밀교 수행의 정수인 관세음보살의 본심(本心)진언 ‘옴마니반메홀’으로, 레닌 봉으로 알려진 도기(Dogee) 산자락에 거대한 돌에 그려졌다고 밝혔다.
 총 길이가 120m가 넘는 이 대형진언은



러시아 투바 도기 산에 제작된 ‘옴마니반메홀’ 진언.

사용된 흰색 페인트만 500kg가 넘으며, 투바의 수도 키질(Kyzyl)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김철우 기자

할리우드, ‘부처님 전기’ 영화로 원작 탁남한의 ‘소설 붓다’...제작비 1억2천만달러

‘할리우드와 불교가 만나다?’
 오락 영화의 본 고장 미국 할리우드에서 부처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원작은 프랑스 필립빌리지의 수행자 탁남한 스님이 쓴 <소설 붓다 (Old Path White Clouds)>, 제작은 M 필름이 맡는다고 미국 뉴욕의 캐스팅 전문 영화사 백스테이지(Backstage)가 9월 12일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M 필름은 9월 11일 베버리 힐즈 펜넬호텔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부처님 전기영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달라이라마와 탁남한 스님을 비롯해 사론 스톤, 로렌스 피쉬번,

골디 혼 등 할리우드 스타 등 75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설명회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부처님 일생을 다룬 영화는 자비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스테이지는 또, 제작비용에만 총 1억 2천만 달러(한화 1천억원)가 투입되며, 극본은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쓴 데비드 워드가 맡게 된다고 전했다. 감독과 배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김철우 기자

평화통일기원 <http://www.buphwajungsa.or.kr> 한글주소: 법화정사 · 세계불교수도원구룡사 · 불사리탑
 ※임진각역 기차표와 버스표를 법화정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02-326-1331, 02-333-9586

법화경사경독송대법회

전세계 1백만 법화경사경행자 기도모임 통해 평화통일 발원
 10월 15일(일) 10시 ~ 오후3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통일, 세계평화를 지키는 법화경 독송과 순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열며

1. 평화통일기원 법화경독송기도
2. 호국법화경 한글공체서예, 한문에서체 서예전시
3. 나라청정 민족청정을 위한 부처님 세안식
4.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제
5. 통일기원/음악회

귀의 삼보하옵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가정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법화경사에서는 전국 전세계의 불자들이 임진각 평화누리에 모여서 분단조국의 통일을 발원하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법화경독송기도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국보인 마하무니 황금대불사원의 조실이신 예도사야도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나라의 청정과 민족의 청정, 중생의 정화를 발원하는 부처님 세안식을 봉행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대법회에는 전국의 1200여명의 유명 서예가들이 완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궁체서예법화경과 예서체한문서예법화경도 전시합니다.
 이 행사에서 모금한 기금은 남북한 수재민돕기와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후원에 사용됩니다.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과 온가족이 동참하여 칠천만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2006년 10월 15일 **회주 석도림 스님과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일시: 2006. 10. 15(일) 10시 ~ 오후3시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 법화정사**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경기도 파주시) **세계불교수도원구룡사 · 세계대각법화회**
 ※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글법화경을 한 권씩 드립니다.